아제르바이잔의 농업현황 *

김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아제르바이잔 일반현황

1.1. 개요

불을 뜻하는 '아제르'와 땅을 뜻하는 '바이잔'의 합성어로 이름 지어진 아제르바이잔은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카스피해의 인근 국가이다. 우리에게 이름이 친숙하지 않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발상지이며 기원전 6~7세기부터 원유를 생산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원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1848년에는 최초로 유정 천공을 성공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는 바쿠로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동쪽에는 카스피해, 북쪽에는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 서쪽으로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남쪽으로는 이란과 인접하고 있으며 터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터키와 문화적 유사점이 많다. 러시아와 튀르크 전쟁에서 터키는 참패하여 아제르바이잔을 러시아의 빼앗기게 되며 1922년 아제르바이잔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

* (kyj4835@krei.re.kr).

화국에 편입되었으며 1991년 2월 독립하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현재의 국명을 갖게 되었고 1993년에는 CIS[1]에 가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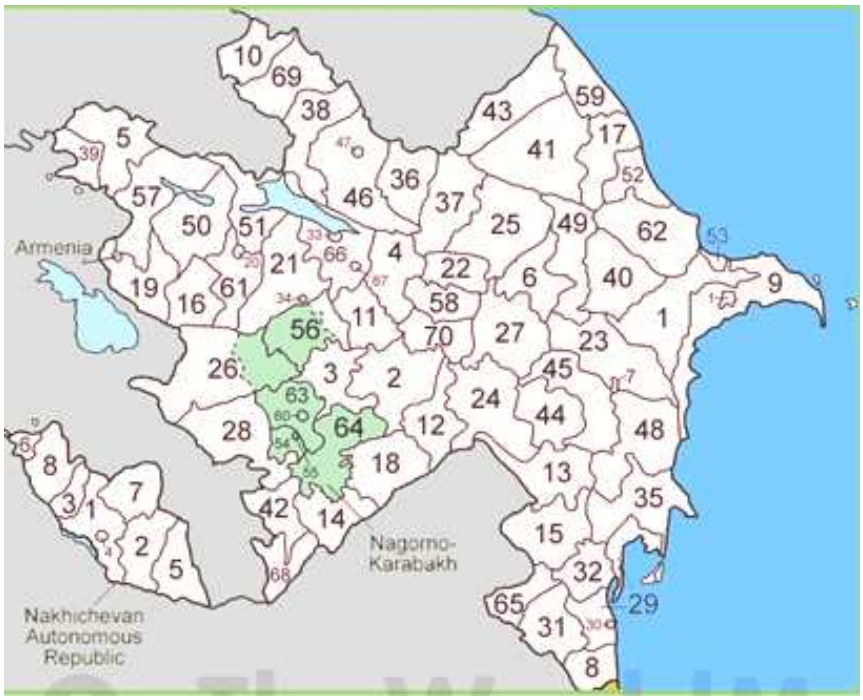
그림 1 아제르바이잔 지도

자료: Google 이미지 (2016)

아제르바이잔은 59개의 구와 11개의 시, 1개의 자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은 7개 구와 1개의 시로 나뉜다. 1990년대 초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치렀고 1994년 비셰크 협정으로 휴전을 맺었다. 하지만 2014년 7월 27일에 발생한 충돌은 휴전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아제르바이잔군은 12명이 사망하였다.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은 사실상 독립된 상태로 수도는 스테파나케르트이다. 소련에서 독립 이후 이 지역의 대다수의 주민인 아르메니아인들은 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1994년까지 전쟁을 계속하였다. 현재는 아제르바이잔이 주권인증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의 괴뢰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 CIS는 독립국가연합이라는 뜻으로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10개국의 연합체 혹은 동맹임. CIS 국가로는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이 공식국가로 참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비공식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림 2 아제르바이잔 지역 이름



1	압세론 Absheron D*	19	가다바이 Gadabay D	37	콰발라 Qabala D	55	**수스하 Shusha (C)**
2	아그자바디 Aghjabadi D	20	간주 Ganju (C)	38	콰크흐 Qakh D	56	**타타 Tartar D**
3	아그담 Agdam D	21	고란보이 Goranboy D	39	콰자크흐 Qazakh D	57	토부즈 Tovuz D
4	아그다시 Agdash D	22	고이차이 Goychay D	40	고부스탄 Gobustan D	58	우자르 Ujar D
5	아그스타파 Agstafa D	23	하지가불 Hajigabul D	41	쿠바 Quba D	59	카츠마즈 Khachmaz D
6	아그수 Agsu D	24	이미시리 Imishli D	42	쿠바들리 Qubadli D	60	**칸켄디 Khankendi (C)**
7	쉬르반 Shirvan (C**)	25	이스마일리 Ismailli D	43	쿠사 Qusar D	61	고이골 Goygol D
8	아스타라 Astara D	26	카르바자 Kalbajar D	44	사틀리 Saatly D	62	크히지 Khizi D
9	바쿠 Baku (C)	27	커다미르 Kurdamir D	45	사비라바드 Sabirabad D	63	**코잘리 Khojali D**
10	바라칸 Balakan D	28	라친 Lachin D	46	샤키 Shaki D	64	**코자벤드 Khojavend D**
11	발다 Barda D	29	란카란 Lankaran D	47	샤키 Shaki (C)	65	야르디믈리 Yardymli D
12	베이라간 Beylagan D	30	란카란 Lankaran (C)	48	살얀 Salyan D	66	예블라크흐 Yevlakh D
13	빌라수바 Bilasuvar D	31	레리크 Lerik D	49	사마크히 Shamakhi D	67	예블라크흐 Yevlakh (C)
14	자브라일 Jabrayil D	32	마살리 Masally D	50	샴크르 Shamkir D	68	잔길란 Zangilan D
15	잘리라바드 Jalilabad D	33	민가체버르 Mingachevir (C)	51	사무크흐 Samukh D	69	자카탈라 Zaqatala D
16	다시카산 Dashkasan D	34	나프타란 Naftalan (C)	52	시아잔 Siazan D	70	자르다브 Zardab D
17	사브란 Shabran D	35	네프트찰라 Neftchala D	53	숨카이트 Sumqayit (C)		
18	피주리 Fizuli D	36	쿠그허즈 Qghuz D	54	**수스하 Shusha D**		

주: 볼드표시된 지역은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임.
*D 는 District를 나타냄. **C 는 City를 나타냄.
자료: ontheworldmap.com(2016)를 토대로 저자가 재작성함.

1.2. 자연환경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조아열대기후에서부터 툰드라기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중부와 동부는 건조한 아열대기후를 형성하며 일교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남동부지역은 습윤한 아열대기후를 보이며, 이란과 인접지역은 온대대륙성기후를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은 전 세계 13개 기후대 중에 9개가 존재하며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하는 것이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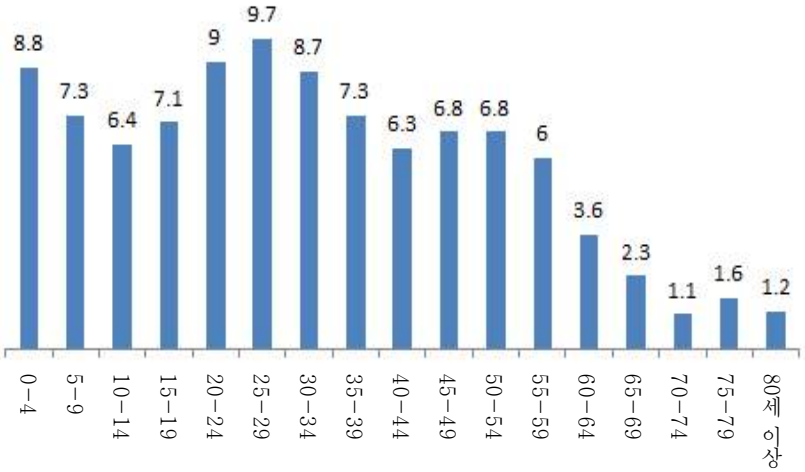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높은 곳은 코카서스산맥에 있는 바자르듀주(Bazardyuzyu)산으로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높이는 약 4,466m이다. 바자르듀주 산맥 남쪽에 위치한 세키 자카타리(Sheki Zakataly)지역은 강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자카타리 지역은 곡물과 과일, 담배, 견과류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해안의 저지대에서는 야채와 과일, 곡물 등이 생산된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나히체반공화국은 평균 해발 고도가 3,000~3,500m에 달하며 남서쪽으로는 아라스강이 흐르고 있다. 아라스강 중류에는 낮고 평평한 분지가 펼쳐져있다. 일반적으로 나히체반공화국은 봄에 비가 많이 내리며 연 강수량은 저지대에서 200㎜, 산지에서는 500~70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분지에서는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소맥, 보리, 목화, 잎담배, 포도, 복숭아 등을 재배하고 저지대 산비탈에서는 양, 산양, 젖소, 말 등을 사육한다.

아제르바이잔은 다채로운 기후적인 특색으로 인해 전 지역에 걸쳐 쇠나무인 패로시아퍼시카, 자귀나무, 참나무 등의 아제르바이잔 고유종 240종을 포함해 약 4,000여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350여종의 조류를 포함하여 약 1만 2,000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철갑상어의 80%가 이곳에 몰려 있다.

1.3. 인구구성

아제르바이잔 국토의 총 면적은 약 8.6만 ㎢이며, 총 인구는 약 9만 7,000명이다.(세계은행 2015). 인구 구성은 아제르바이잔인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다게스타인(2.2%), 러시아인(1.8%), 아르메니아인(1.5%) 등으로 구성된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대부분이며 러시아청교, 아르메니아정교 등이 있다. <그림 3>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의 0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비율이 전체인구의 8.8%를 차지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2015년 기준 17.4명이다. 노동가능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비율은 71.3%이고 30살 이전의 인구

그림 3 아제르바이잔 인구 연령별 비율 (2016)



자료: 아제르바이잔 통계청(2016) (http://www.stat.gov.az).

가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증가하는 노년인구 부양비는 노년인구의 높은 사망률과 감소하고 있는 유년인구 부양비로 상쇄되어 작용하고 있다. 2014년 유엔개발계발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2]는 0.751점으로 세계 78위를 차지했다. 1995년과 2014년 사이에 아제르바이잔의 인간개발지수는 0.609에서 0.751로 상당히 성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1.11 %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23.3%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아제르바이잔은 평균적으로 0.74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아제르바이잔의 문해율은 약 99.8%로 다른 인접국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농촌인구는 약 438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4.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정부가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압박한 결과 약 546만 명인 5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3]

2001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인구의 49%가 국가 빈곤선아래 있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29.3%, 2009년에는 10.9%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5%의 인구가 국가 빈곤선 아

2) 인간개발지수는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문맹률,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을 기초로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를 나타냄.
HDI = (1/3)×(소득지수) + (1/3)×(기대수명지수) + (1/3)×(교육지수)
(소득지수) = (구하려는 나라의 소득 − 최저치)/(최고치 − 최저치) × (각 수의 log값)
(기대수명지수) = (구하려는 나라의 평균수명 − 최저치)/(최고치 − 최저치)
(교육지수) = (2/3) × (성인문자 해독률) + (1/3) × (총취학지수)

3) 세계은행 데이터 (2014) http://data.worldbank.org/topic/urban-development?locations=AZ&name_desc=true

래에 위치한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생활 물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활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남녀 모두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임금수준이 낮고 오직 1%만 석유산업에서의 고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석유산업이 전체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15세에서 29세의 남성의 8.5%, 여성의 12.2%가 실업자이며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의 약 6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2008-2015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 계획을 수행하였고 지역별 사회경제개발 국가계획, 아제르바이잔 2020 미래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4)]

1.4. 정치

아제르바이잔은 강대국인 러시아 터키와 인접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터키의 지배를 받아왔다. 1568년에 처음 발발하고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러시아와 튀르크 사이의 전쟁은 1922년에 아제르바이잔을 결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편입하게 만들었다. 1991년 2월 독립하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현재의 국명을 갖게 되었다. 이후에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다가 1993년 헤이다르 알리예프가 집권하면서 국가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국의 안정, 유전개발 및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nstment, FDI)유치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를 이용하여 아제르바이잔 권력기구를 장학하였다. 2002년에는 그의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일함 알리예프는 비교적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칭송받았으며 2008년에는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 이후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장기집권의 토대을 마련하였고 이후에 열린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하여 정국이 안정되었으며 정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였으며 2016년 9월 26일에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전체 투표율은 69.7%, 찬성률은 91%로 대통령 권한 개헌안은 가결되었다. 개헌안에는 1)대통령의 임기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2)새로 신설되는 부통령의 인사권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해임 권한이 주어지며 3)기존 대통령 입후보

4)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Azerbaijan, 2014-2018. ADB(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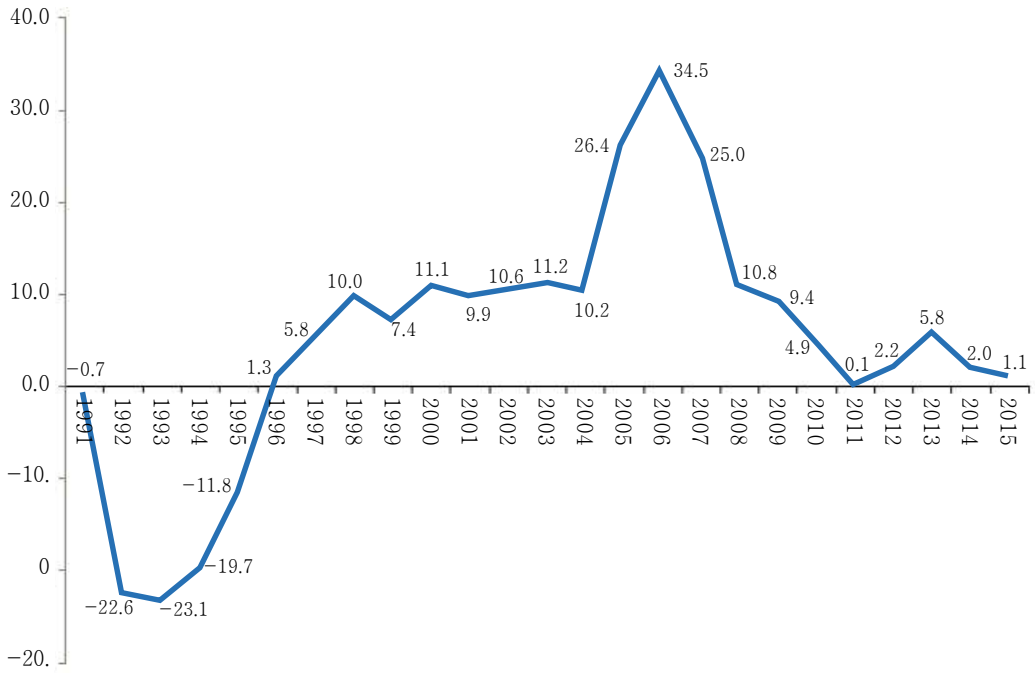
연령(35세)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유럽평의회에서는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권력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야당에서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19세 아들을 염두에 두고 권력을 승계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아제르바이잔 사회·경제 및 농업현황

2.1. 사회·경제 현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속해있던 아제르바이잔은 1989년 10월 25일 민족주의 운동으로 공화국 주권을 선언하였다. 1991년 2월 5일 아제르바이잔으로 국명을 변경하였으며 8월 30일에 공화국으로 독립 선언을 하였다.[5] 하지만 독립 이후에 아제르바이잔은 극심한 경제침체와 산업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다른 CIS 국가들과 비슷한 시기에 체제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아르메

그림 4 아제르바이잔 GDP성장률(%)



자료: World Bank(2016).

5) 김상원. 2011. 아제르바이잔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발전. 동유럽 연구 제26권. P191.

니아와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민족 분쟁으로 체제전환 초기에는 경제 침체는 불가피하였다. 체제전환이후인 1993년 GDP 성장률은 -23.1%를 기록하였고 1990년 중반에 이르러야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이를 활용할 인프라가 이미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체제전환 이후 1990년 중반에는 경기를 회복할 수 있었고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2007년에는 34.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최근에는 1~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인프라 투자확대로 건설경기가 활발하였으며 성장률이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5.8%를 달하였지만 아제르바이잔 석유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Azeri－Ghirag-Guneshli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석유분야의 정부지출은 확대하였으며 1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6)]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규제와 복잡한 허가절차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기업 투자 유용성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에 80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국가 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인근 국가의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아제르

표 1 아제르바이잔 인근 국가의 경제지표 비교

국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항목	단위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경제규모	10억 $	38.6	39.4	9.5	10.1	12.5	13.6
GDP 성장률	%	5.8	2.0	3.3	3.5	3.3	4.8
소비자물가지수	지수	-	-	117	120	107	110
수출액	10억 $	35.8	32.6	3.2	3.3	7.2	7.1
수입액	10억 $	19.8	19.7	5.4	5.5	9.3	10.0
경상수지	10억 $	12.2	10.2	-0.8	-0.8	-0.7	-1.7
달러환율	자국통화/$	0.8	0.8	409	415	1.7	1.8
FDI 순유입액	1억 $	2.6	4.4	3.8	4.0	0.7	1.6
외환보유고	1억$	22.3	2.1	6.6	-5.5	-1.7	-1.7

자료: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Global Development Finance. 저자가 재편집.

6) KOTRA 2015. KOTRA 국가 정보아제르바이잔.

바이잔은 아르메니아나 조지아에 비해 경제규모가 약 3~4배 크지만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액은 살펴보면 아르메니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2. 농업 연왕

농업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에너지산업과 함께 국가 전체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농업은 아제르바이잔 전체 GDP의 5.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36.8%가 농업과 관련되어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는 침체되었으며 공업부문의 노동자의 약 13만 3,000명이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농업부문의 노동자수는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 농업 종사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농업 설비 악화로 인해 생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요 수출품인 와인용 포도, 면화, 담배 등 거의 모든 농작물이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체제전환 이후 악화되었던 농업이 1998년에는 회복세에 진입하게 되었고 농산업과 수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었다.

아제르바이잔은 약 470만 헥타르의 농토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국토의 약 50%를 차지한다. 농산물의 곡물 생산량은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가축에서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의 약 37%가 농산물 가공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농산물은 주변의 CIS 국가로 수출되었으며 최근에는 CIS를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력은 다른 국가들에게로 확대되었다. 농산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채소 및 과일, 동물성 오일, 당류, 티, 가공식품 및 과일, 음료, 담배, 면화 등이다.[7)]

아제르바이잔은 9개의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우유,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소맥, 감자 등의 작물, 토마토, 포도, 수박 등 과채류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표 2>는 특정 작물들의 헥타르 당 100㎏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표를 보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생산량이 2005년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Azpromo. 2012. Azerbaijan: Agriculture and Food Processing.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표 2 아제르바이잔 주요 작물 생산량

단위: 100kg/h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40	144	139	142	140	142	146	150	154	152	158
양배추	151	153	143	146	146	150	154	172	158	159	163
오이	125	128	127	131	127	129	135	138	144	143	155
토마토	174	170	163	164	154	160	165	178	186	182	189
근대뿌리	120	133	129	134	134	117	124	142	132	135	143
당근	109	120	120	127	135	134	127	125	127	126	127
양파	122	124	123	127	131	134	140	143	142	144	148
마늘	84	90	87	84	87	81	88	84	83	85	87
완두콩	36	53	94	101	31	25	39	43	61	33	47
기타	123	145	135	139	146	149	140	133	135	129	132

자료: 아제르바이잔 통계청(2016.10) (http://www.stat.gov.az) 재편집.

<표 3>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작물인 감자, 채소, 가축, 우유, 시리얼 등의 주변국들과의 생산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아르메니아와 비교해보면 1995년도 대비 현재 작물 생산량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유의 경우 아제르바이잔은 1995년도 대비 2015년에 약 233%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약 111%, 러시아는 약 96%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업과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작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자급률의 약 60%를 밑도는 수준으로 고급 기술 도입과 정책적 보완을 통해 농업 생산량을 꾸준히 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표 3 아제르바이잔과 주변국의 작물 생산량

단위: 1,000톤

	1995	2000	2005	2010	2015
감자					
아제르바이잔	**156**	**469**	**1,083**	**954**	**840**
아르메니아	428	290	564	482	770
카자흐스탄	1,720	1,693	2,521	2,555	3,521
키르기스스탄	432	1,046	1,142	1,339	1,416
러시아	39,909	29,465	28,137	21,141	33,625

(계속)

	1995	2000	2005	2010	2015
채소					
아제르바이잔	**424**	**781**	**1,127**	**1,190**	**1,275**
아르메니아	451	376	664	708	1,050
카자흐스탄	780	1,544	2,169	2,577	3,565
키르기스스탄	318	747	737	812	1,052
러시아	11,275	10,822	11,348	12,126	16,079
가축					
아제르바이잔	**109**	**154**	**198**	**245**	**299**
아르메니아	48	49	56	70	176
카자흐스탄	985	623	676	834	930
키르기스스탄	180	196	182	188	380
러시아	5,796	4,446	4,990	7,167	9,485
우유					
아제르바이잔	**827**	**1,031**	**1,252**	**1,536**	**1,925**
아르메니아	428	452	595	601	729
카자흐스탄	4,619	3,730	4,749	5,381	5,141
키르기스스탄	864	1,105	1,198	1,360	1,481
러시아	39,241	32,259	31,070	31,847	30,781
시리얼 및 건 두류					
아제르바이잔	**882**	**1,509**	**2,077**	**1,951**	**2,923**
아르메니아	263	225	396	326	638
카자흐스탄	9,506	11,565	13,781	12,185	18,674
키르기스스탄	913	1,569	1,667	1,584	1,850
러시아	63,406	65,420	77,803	60,960	104,299

자료: 아제르바이잔 통계청(2016.10) (http://www.stat.gov.az) 재편집.

아제르바이잔 농업발전의 난제인 생산성 증대, 농업 기술 개발, 장기적 농경지를 위한 토지의 보존, 산지의 농토개간, 생산과 가공의 적절한 조정,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해결이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조방농업(extensive agriculture) 시스템에서 집약적인(intensive agriculture)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과일과 채소의 집약적 농업은 상당한 자본과 비료, 농업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약적 농업은 헥타르 당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적은 농지에서 더 높은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농업에서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오는 분야는 축산으로 소, 양, 가금류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가축은 아제르바이잔 전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은 번식을 위한 고품질의 종우가 필요한데 지역 생산자는 품질 좋은 종우를 구매하기에 여유가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여름철 작물인 무화과, 포도, 올리브, 견과류 등은 집약적 농업을 시행할 경우 겨울동안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어 생산량 증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위에서 언급했던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널리 시행중인 조방농업 시스템보다는 집약적 농업 시스템의 전환에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Shikhaliyeve et la 2012).

또한 아제르바이잔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헤이다르 알리예프 재단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농업부문 발전에 우선순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효과적인 수자원과 토지의 보장
- 관개시설 및 토지 개량 공급
- 농업 부문의 물류 강화
- 원료 생산 및 가공 분야 조정
- 국내외 경쟁력 높은 제품의 개발 촉진
- 재정 상황 개선
- 법적 근거 향상
- 과학적 연구법 및 인재 육성 시스템 개선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은 정부와 민간 투자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다양한 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9가지의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알맞은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다양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의 재원은 농업의 재정적 재원의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인 집약적 농업에 증가에 따른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접해 있는 풍부한 글로벌 시장은 아제르바이잔 농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방농업, 아르메니아와의 잦은 전쟁, 농업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 높은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은 농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약점으로 분석되어진다. 한편, 천연·에너지자원의 높은 의존율은 네덜란드 병의 위협을 가지고 오며 국제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약화, 선진 외국시장과의

경쟁, 분쟁지역에 걸친 수자원의 높은 의존성 등은 아제르바이잔 농산업 발전의 위협으로 분석된다.

표 4 아제르바이잔 농업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 오일 머니에 의한 재정적 재원 • 수요의 증가 • 기름진 토양 • 9개의 다양한 기후대	• 조방농업 • 정책적 위험 •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 투자자의 신뢰 부족 • 금융 수단의 부족 • 은행의 높은 이자율 • 인플레이션
기회	**위협**
• 집약적 농업 이용에 의한 생산성 증대 • 글로벌 시장 진출의 위치적 기회 • WTO 가입 기회	• 네덜란드병[8] • 실업률 증가 • 국제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약화 • 외국시장과의 경쟁 • 분쟁지역에 존재하는 수자원의 높은 의존성

자료: Shikhaliyev et la. 2012.

3. 아제르바이잔 농업 정책

3.1. 농업 보조금 정책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은 시장 수요의 미치지 못하는 추세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입을 늘리는 한편 제도적·경제적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비즈니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자에게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제공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년도에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단일 창구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이 시스템 적용이후 해외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스템은 기존 15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었고 등록에 30일이 걸리던 시스템은 3일로 줄어들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농업 장려를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다양한 보조금 지급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8) 천연자원에 의존하여 일시적인 호황을 맞았던 국가가 무역흑자로 인한 자국화 가치가 상승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경기침체를 겪는 현상을 말함.

3.1.1. 아제르바이잔 농산물 직접 보조금 정책

2007년부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00%의 식량 자급을 목표로 식량 증산을 위한 전략으로 소맥과 쌀 재배 면적의 헥타르 당 40마나트(약 2만 8,000원)[9]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소맥 생산량은 헥타르 당 2.6톤에 불과하고 이것은 국내 식량 자급의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의 소맥 수입은 필수불가결하며 2012년 소맥 수입량은 전년대비 20만 톤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맥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유기 비료를 구매할 시 70%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특별히 소맥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맥 직불금은 저품질의 소맥 생산을 부채질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소맥 직불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맥을 경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토양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소맥을 재배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매해 소맥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돌려짓기를 시행하지 않아 지력이 나빠져서 작물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생산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1.2. 아제르바이잔 비농산물에 관한 농업 정책

농업은 아제르바이잔의 조세피난처라고 불릴 정도로 세금혜택이 크다. 주요 산업인 농업 장려를 위해서 아제르바이잔 의회에서는 2001년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농업 관련 세금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동 법안은 2003년, 2008년, 2013년에 계속 연장되었고 2018년에 다시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농업 종사자들의 세금에 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또한 농업 종사자를 위한 농기계 임대 와 판매에 대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급기술을 전달하여 농업 종사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 생산량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수입된 고급 농업 기술과 농기계는 부가가치세와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농업 종사자는 농업부 산하에 있는 농촌신용청(State Agency on Agricultural Credits)과 국가사업기금지원청(National Fund for Entrepreneurship Support)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다.

9) 하나은행 외환포털 비고시환율. 2016.10.24. 기준 원화환산 705.97원임.

표 5 아제르바이잔 농업 보조금 정책

농산물 보조금	비농산물 보조금
헥타르 당 소맥과 쌀의 약 28,000원 직불금 지급	농업생산자의 조세피난처
종자 구입비용의 절반 정부 지원	농업생산자의 저금리 융자
소맥 생산자의 무기비료 구입의 70%의 정부 지원	농업생산자의 가스 구입비용의 50% 할인
순혈통 소 구입의 50% 할인	무기비료 구입의 50% 할인
	농기계 임차 특혜
	농업생산자의 관개용수 비용 특혜

자료: Khalilov et la. 2015.

3.2. 친환경 농업을 위한 관련 정책

2012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효과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생산량이 높은 다양한 작물들과 고품질의 가축 종두의 수입을 통해 높은 기술력을 적용하고 습득하여 친환경 농법과 함께 연계시켜 비교우위를 가지고자 한다. 동시에 2013년 대통령령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2020: 미래의 조망(2020: Look into the Future)”이 승인되었다. 2014년 대통령령인 “농업 시장과 생산품에 관한 추가적 개선 사항”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와 다른 거대 도시에서 ‘그린 마켓’을 목적으로 특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기준은 관련 입법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3 대통령령에 포함된 농업 발전 방안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인 “아제르바아잔 2014-2018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서 국가 경제의 주요한 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수출 농산물의 경쟁성 강화를 위한 농업 생산과 가공에 연계된 통합적 발전과 식

량자급 달성

- 농산물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보조금과 재정적 지원
- 가축과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극제 도입
- 고품질의 묘목, 소맥, 포도 등을 생산하는 영농 기업의 설립
- 수확 후 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온실, 저온 저장시설 및 복합 저장시설 등 개발
-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활동 적용
- 시장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구조의 도입과 농업의 기술 강화
- 농업 생산량 확대를 위한 관개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및 개발
- 간편한 전자 농업 등록 시스템과 토지 소유자 전자기록 등의 적절한 기술 도입

4. 시사점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농업부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농업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특성과, 9개의 기후대 분포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 시장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아시아에도 다양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제르바이잔 농업은 오일머니를 통한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고, 다양한 기후대의 적합한 기름진 토양을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집약적 농업 시스템 도입 및 WTO 가입 기회를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 확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도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방농업과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위협, 금융의 신뢰 및 수단 부족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 시장과의 글로벌 경쟁의 위협이 나타난다.

우선,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강점과 기회를 증대시키고 약점과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농업 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확보하여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

경농업에 경우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알맞게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다양한 지력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종사자에게 고품질의 농업 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후대에 맞는 적합한 기술의 도입은 농업 생산량 증대에 눈에 띄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식량 자급률을 확보함으로 식량안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문에서 농업 발전을 둔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소맥 직불제에 관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내에서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적 성공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농업 정책에 관해 정책영향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구. 2009. “지역연구시리즈-아제르바이잔”. 한국산업은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국가협력전략:아제르바이잔 2012-2015”.

김상원. 2011. “아제르바이잔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발전”. 동유럽연구 제26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국가정보: 아제르바이잔”. KOTRA.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2011. “국가별보고서: 아제르바이잔”. 이코노미스트.

ADB. 2014.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Azerbaijan 2014-2018.* Asian Development Bank.

Azpromo. 2012. *Azerbaijan: Agriculture and Food Processing.*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EU. 2011.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Highlights. Foodsec.

KDI. 2015. *2014/2015 Knowledge Sharing Program with Azerbaijan.* KDI.

Khalilov, H., N. Shaluzov. and R. Huseyn. 2015. *Country Report: Azerbaijan.* 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Shikhaliyev, K., O. Ismayilzada. and S. Khaliov. 2012. *Agricultural Sector of Azerbaijan – Overview and Analysis.* International School of Economics at Tbilisi State University

World Bank. 2015. *Doing Business 2015: Going Beyond Efficiency.* World Bank.

참고사이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ww.fao.org)

세계은행(www.worldbank.org)

아제르바이잔 통계청(http://www.stat.gov.az)

온더월드맵(http://ontheworldmap.com)

하나은행 외환포탈(http://fx.kebhana.com/index.jsp)